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2년도 제37호

### 체육시민연대 집행위 칼럼

**스포츠 심리학 전공자가 생각하는 스포츠 멘탈 트레이닝의 문화**

안성훈 체육시민연대 사무차장

**“대입 축하하자” 뵈어 불러낸 제자, 술 먹여 성폭행 시도**

**이규현 ‘미성년 제자 성폭행’ 장면, 불법 촬영했다**

백담 노컷뉴스 기자

### 바스켓코리아 칼럼

**대학 입시, 최저 학력과 학생부 그리고 실기 테스트**

김우석 바스켓코리아 기자

**골프 붐 타고 학교 소속 아마추어 선수 증가세**

**골프 꿈나무 있는데.. 훈련 환경은 오히려 악화**

최태원 아시아경제 기자

**대한체육회, 2022년 스포츠영웅 후보자 공고**

**2022년 스포츠영웅 최종후보 김수녕, 박항서, 이봉주, 故최동원**

장현구 연합뉴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스포츠 심리학 전공자가 생각하는 스포츠 멘탈 트레이닝의 문화

안성훈 / 체육시민연대 사무차장

먼저, 질문을 하나 하자면, '멘탈 트레이닝을 하는 운동선수'라는 표현에 거부감이 드는가? 거부감은 커녕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스포츠 심리상담을 받는 운동선수'는 어떨까? 어감상 뭔가 운동선수로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혹시 멘탈 트레이닝과 스포츠 심리상담이 다르게 느껴지는지 질문을 던져본다.

두 단어는 동일한 개념이다. 어감이 주는 차이도 있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는 서로 별개의 개념이라 생각하는 문화가 강했다. 나는 이때 대학원생 신분으로 선배들이나 지도 교수님의 심리 지원을 보조하려 현장에 나가보면 선수들에게 멘탈 트레이닝은 반드시 경기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되면서도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다 하면 거부감을 드러내는 문화였다.

운동선수들이 받는 스포츠 심리상담은 일반적으로 임상 심리학에서 접근하는 상담과는 달리, 기량 향상을 위한 멘탈 트레이닝을 의미한다. 즉, 상담을 통해 심리기술 훈련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행적 측면에서 스포츠 과학의 일부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던 과거의 스포츠 문화를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려 한다.

지금은 멘탈코치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 운동을 했었다. 선수 시절 멘탈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 늘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 자신감을 운으로 생각하는 선수였다. 어떤 날은 '왠지 잘할 것 같아!', 어떤 날은 '왠지 못 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반복하며 운동 생활을 마무리했다. 지금은 어떤 원리에 의해 자신감이 형성되는지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 경기 전날밤이면 평소에 기독교인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부처님, 알라신, 동자신을 찾을 정도였으니 말 다한 거지 뭐.

80년대 생으로서 내가 운동할 때까지도 멘탈의 중요성은 그리 부각되지 않았다. 단지, 깡다구와 투지라는 두 단어가 내가 알고 있는 멘탈 트레이닝?의 전부였다. 뒤늦게 알았지만 멘탈 트레이닝의 근본이 되는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당시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현장에서는 존재조차 몰랐던 것이 사실이다. 일상에서 심리적인 문제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 하는 것을 철저히 숨기는 문화였으니 만약에 스포츠 심리상담의 존재를 알았어도 시대 배경 상 상담을 받으려 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

운동선수로서 심리적 문제는 무조건 스스로 극복해야 했다. "선생님, 자신감이 없습니다" 하면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맞을 것 같았다. 비슷한 의미로라도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한 번은 부모님께 심리적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운동선수가 약으로 깡으로 이겨내야지"라는 격려?를 들었다. 그런 문화였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있는 팀과 지역, 종목을 넘어 운동이라는 영역에서 마찬가지였다. 운동선수라면 '정신력' 하나 만큼은 강해야 했다. 실력이 부족해도 정신력 하나로 버티라는 말은 내가 선수 시절 늘 들었던 얘기 중 하나다.

하루는 코치 선생님께서 선수단 전체를 가르키며, "너네는 왜 자신감이 없냐, 그렇게 깡이 없어??" 그러시면서 체력 운동을 시키셨다... 도대체 자신감과 깡은 무슨 상관이며, 자신감이 없는데 체력 운동을 시킨다는 생각에 반감과 반항심이 가득했었다. 점차 체력운동이 체벌처럼 느껴져 필요함을 알면서도 운동선수 생활 내내 기피했었다. 굳이 추측하건데, 코치 선생님께서는 체력이 강해지면 깡과 자신감이 동시에 향상될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셨을까...

지금은 심리적 문제를 심리 훈련으로 대응하는 문화인 것 같다. 물론, 지금도 모든 선수들이 심리적 문제를 전문가에게 도움받지는 않지만, 과거에 기술과 신체를 단련하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던 스포츠 현장에서 멘탈 트레이닝의 활용성을 논의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심리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일부 운동선수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현재 멘탈 트레이닝의 위치를 간접적으로 대변하기도 한다.

점차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멘탈 트레이닝의 효과를 언론에 언급하면서 크게는 정책의 변화, 적게는 선수와 팀 관계자 및 학부모님들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국가적 지원과 더불어 프로와 국가대표 선수들이 필요에 따라 멘탈 코치를 사비로 영입하여 국내 대회는 물론, 국제대회에도 코칭 스텝의 일원으로 함께 시합 일정을 소화하기도 한다. 각 협회에서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에 스포츠 심리학 과목을 필수 항목으로 지정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프로팀을 비롯하여 아마추어 팀에서도 지도자들이 멘탈 트레이닝을 도입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단발성의 강연 초청부터 6개월, 1년 등의 단위 계약으로 멘탈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사례들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한국스포츠심리학회에서도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멘탈 트레이너를 양성하기 위해 학문적, 제도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스포츠 심리상담사'라는 자격증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 우려되는 부분은 많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관심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로 선수들도 심리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다소 줄어든 모양새이다. 이제는 "나 심리상담 받아" 혹은 "내 멘탈코치야"라는 말을 당당하게 동료들에게 한다. 심지어 관리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주기도 하나 보다. 이처럼 스포츠 현장에서 엘리트 선수들이 심리적 문제를 혼자 끙끙 앓기보다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후회 없는 선수생활을 펼쳐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오면 하는 마음에서 멘탈 트레이닝의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확장되어 가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자신감 문제는 체력훈련이 아닌 자신감을 키우기 위한 멘탈훈련으로!!!' 트라우마였나 보다...

# 이규현 '미성년 제자 성폭행' 장면, 불법 촬영했다

노컷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현 코치가 범행 당일 장소를 옮겨가며 수차례 성폭행을 시도한 것도 모자라 불법 촬영까지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이씨를 강간 미수 혐의와 더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도 적용해 구속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올해 초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를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범행 시도는 한차례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범행 당일 장소를 옮겨가며 여러 차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씨 측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에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월 17일 같은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동부지검을 거쳐 지난 7월 사건을 이송받은 남양주지청은 수사를 이어가다가 약 두 달 만에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현재 이씨는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 당시 이씨의 가족이 빙상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씨 집안은 '빙상 집안'으로 유명하다. 이씨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 감독의 동생으로 아버지 이익환씨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출신, 어머니 이인숙씨는 전국 스케이팅연합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씨 또한 1998년 나가노, 2002 솔트레이크 등 두 차례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출신으로 2003년 현역 은퇴 후 코치로 활동해왔다.

'체육계 성폭력' 문제는 지난 2019년 조재범 코치의 제자 성폭행 사건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기관이 근절 대책을 내놓은 지 3년 만에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체육계 성폭력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데에는 코치 등 지도자에게 막강한 권한을 두는 폐쇄적인 구조에도 원인이 있다며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빙상 집안'으로 불리는 이씨의 경우 피해자가 느꼈을 압박이 훨씬 더 컸을 것이라며 구속 조치가 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주종미 호서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교수는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이씨의 부모가 대한체육회 여성체육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맥이 막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실이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될 수 있고 회유와 협박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구속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선수들의 신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다 집중된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상급학교 진학권, 출전권 등 모든 권한이 코치에게 집중돼 있는게 현실이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주의 경우 권력 분산이 잘 되어 있는데 코치가 폭행한 경우 학교 행정실에 전부 보고되고 이후 행정실에서 직접 조치한다"며 "이런식으로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코치가 지금 제대로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전 생긴 스포츠 윤리센터 분원 설립 및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주 교수는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현재 40명 정도밖에 안된다"며 "그 정도 인원으로는 인권교육 관리와 사건 조사, 불시 점검 등을 할 수가 없다"며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에서 멀수록 감시가 덜해져 지방에서 오히려 지도자의 (성)폭력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지방에도 센터 분원을 설립해 지방에서 직접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의 첫 공판은 오는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바코 칼럼]

# 대학 입시, 최저 학력과 학생부 그리고 실기 테스트

지난 추계 대회를 끝으로 고등학교 아마추어 전국대회가 모두 막을 내렸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농구 선수들은 대학 진학과 관련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바스켓코리아는 대학 입시 철을 맞이, 대학의 입시 제도 현황과 현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다. 대학총장 스포츠 협의회(이하 KUSF)에 등록된 12개대학 체육 특기자(농구)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총 62명이다. 다가오는 9월 KBL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4학년은 29명이다. 얼리 드래프트 신청한 10명을 포함하면 한 해에 대학을 입학하는 학생들 중 50%정도 만이 프로 드래프트를 준비하는 정도다. 그 중 20명 안팎 정도가 프로에 진출하는 것을 보면 대학 입시부터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농구 선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대학 입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편에서 경기 실적을 다뤘다. 이번에는 최저학력과 학생부 그리고 실기 테스트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먼저, 최저학력에 대해 알아보자.

대학 지도자들과 고등학교 지도자들이 최저학력을 요구하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에 대한 최저학력 기준을 물어보면 내신 7등급 혹은 6등급이라고 답한다. 그러나 7등급이 아닌 8등급 선수도 최저학력을 통과할 수 있는 기준 안에 대해 설명하는 지도자는 많지 않다. 원 점수, 표준 점수, 이수 단위 등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등급만으로 최저학력 통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학부모들도 내신 등급으로 대답하는 부모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22년 입시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저학력 기준이 안 되는 선수는 수능을 치러야 하고 수능에서 한국사 5등급 이상을 달성하여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하기도 한다.

최저학력 달성이 어려운 학교는 자사고인 휘문고, 낙생고이다. 상대적으로 쉬운 학교는 지방의 모 학교와 서울 광신방송예술고와 삼일상고가 대표적이다. 지방의 모 학교는 팀 성적이 좋지 않지만, 대학 진학에서는 좋은 결과를 꾸준히 도출시켰다.

특정 대학이 요구하는 최저학력도 실제로 자사고에서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외에도 수행 평가를 통하여 최저학력을 통과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역시 본인의 노력에 달려있다.

입시 원서에 첨부하는 학생부 자료는 학생 선수의 고등학교 생활 전반에 걸친 활동 사항, 출결 사항/각 학기 별 성적표다.

지난번 자료에서 밝혔듯이 학생부 서류는 입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관리에 치밀해야 한다.

대부분의 고등학교도 공부하는 학생 선수라는 명목으로 대학처럼 수업을 듣고 오후 운동과 방과 후 야간 운동을 통하여 실력을 키우고 있다. 또한, 질병 등이 아니라면 출석 일수도 채워야 한다. 입시에서 일정 부분 반영되기 때문이다. 1차 서류전형 후 실기를 진행하는 대학도 있다. 중앙대, 성균관대, 동국대, 명지대는 실기전형을 통해서 선수선발을 한다. 실기 내용 역시 대학마다 다르니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수험생과 대학 재학생 간의 게임을 통하여 실기를 진행하는 대학은 전형이 끝나도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듯 입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고등학교 지도자, 학부모, 선수는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다. 문제점도 다양하게 도출되고 있다.

먼저, 최근 대회에서 부정 선수(전학 규정으로 1년간 출전 금지)가 게임에 참가하면서 중고연맹으로부터 해당 학교의 농구 부장이 자격 정지 2년을 받은 사실도 있다. 이런 제보는 대부분 학부모로부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도 소재 모 학교도 지난 춘계 대회에서 부정 선수 출전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던 것.

고등학교 지도자들은 고 3선수의 진학에 따른 대회 출전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 여러 형태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오해로 인해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기도 한다. 이에 더하여 선수 혹은 부모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팀 분위기가 엉망으로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입시로 인한 혼란이 아직은 고등학교 지도자들과 선수에게 아직도 익숙한 환경은 아닌 듯 하다. 개인 기록도 중요하지만 매 경기에서 런닝 타임도 입시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사실 대학은 입시 과정에서 좋은 선수를 선발하는 노력보다는 입학한 선수를 성장시켜야 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 싶다. 물론 이견이 많은 부분임은 분명하다.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선수 구성으로 인해 성적의 낙폭이 큰 종목이 농구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지도자는 선수들을 입시 기계로 만드는 것보다는 농구 선수로서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량 발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하지만, 입시 제도로 인해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농구는 분명 대학 입학에 있어 타 종목과는 다른 특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수비력을 평가하는 수치가 더해져야 한다. 그 부분이 빠져있다. 농구계 전체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중고연맹이 공정성 확보를 위해 더욱 신경써야 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 골프 꿈나무 느는데... 훈련 환경은 오히려 악화

아마추어 학생 골프 선수 규모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가했지만, 비용 부담이 늘면서 훈련 여건은 더 악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재정적 부담을 안고 프로 선수가 되더라도 상위 2% 정도의 프로 선수를 제외하면 안정적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로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골프 붐에 꿈나무도 다시 증가세... 상위 2%에는 들어야 '안정적 생활'

14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 골프 선수들은 9월 1일 기준 2325명이다. 2000년 5538명이던 학생 선수는 꾸준히 감소해 2020년 2023명까지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골프붐이 일며 지난해에는 2246명으로 전년 대비 11% 늘었다.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80명 이상 증가했다. 반면 프로 선수로 가는 길은 만만치 않다. 한국프로골프(KPGA)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 따르면 KPGA 투어프로는 2351명, KLPGA 정회원은 1521명에 불과하다. 학생 선수들 입장에선 바늘구멍을 통과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런 관문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상당수 투어 프로들의 환경은 생각보다 열악하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순수 대회 참가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부업을 하거나 중도에 선수 생활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골프 업계는 상금만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선수는 전체의 1% 정도, 후원사 지원까지 합치더라도 2% 정도로 보고 있다.

## 비싼 그린피, 훈련 여건은 악화

훈련 여건도 오히려 악화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 때문에 골프계가 성장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주니어 선수의 성장의 대표적인 장애물은 훈련 비용이다. 골프의 특성상 필드 훈련이 필수지만 관련 비용은 온전히 선수 개인 부담이기 때문이다.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에서 대부분 훈련이 이뤄지는 다른 운동 종목과의 차이점이다. 특히 최근 주요 골프장들의 경쟁적인 그린피 인상은 훈련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린피 인상률은 30%에 달한다. 캐디피도 급등하며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골프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골퍼들이 지불한 캐디피는 2011년 6516억원과 비교하면 2.4배 증가한 1조5934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골프장 경영협회 조사에 따르면 골프장 산업 전체 시장규모(골프장 매출액 + 캐디피)는 2020년 7조66억원으로 전년 대비 18.3% 급증했다. 학생 대회 유치를 꺼리는 골프장들도 학생 선수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다. 일례로 경기도골프협회가 주최하는 학생골프대회는 관내 골프장을 구하지 못해 수년 동안 매년 전북 소재 군산CC에서 개최되고 있다. 경기도에는 170개가 넘는 골프장이 있지만, 학생대회를 위해 골프장을 빌려주면 골프장 처지에선 매출에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주요 대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환경과도 비교된다. 남아공은 훌륭한 골프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골프장이 490여개나 되는데다 그린피가 저렴한 점이 골프 저변 확대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2시즌 마지막 메이저 AIG여자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 애슐리 부하이, LIV 골프 시리즈 1차전 초대 챔프 찰 슈워젤과 2차전서 정상에 오른 브랜든 그레이스 등이 모두 남아공 출신이다.

## 성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성적 지상주의 문화가 선수의 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골프대디' 출신으로 널리 알려진 박노승 대한골프협회 경기위원은 "조급한 마음과 욕심을 가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당장의 성적에만 급급해지게 된다"며 "정말 대선수로 키우고 싶다면 처음 골프 활용법을 가르칠 때부터 골프에 친숙해지고 스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위원은 주요 선수들 사례도 들었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12차례 우승한 버바 왓슨이나 LIV로 이적한 매슈 울프 등 유명 해외 프로 선수들을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스윙을 가진 경우가 많다"며 "반면 국내 아마추어 대회를 보면 컷을 통과한 65명 모두가 거의 똑같은 스윙을 구사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천편일률적인 교육 방식이 오히려 선수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 학업+골프 병행 시스템 정착 필요

한편 프로가 되기 어려울뿐더러 프로가 되더라도 선수 생활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어렸을 적부터 골프 외의 제2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6월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은 2024년부터 최저학력에 미치지 못한 학생 선수의 대회 출전을 금지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만 대회 출전을 제한했던 기존 규정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다. 올 3월에는 교육부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최저학력제 미도달 학생 선수의 참가 제한 대회 규모와 범위 규정 근거와 최저학력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다. 박 위원은 "골프는 공부와 병행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스포츠"라며 "중요한 것은 공부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2022년 스포츠영웅 최종후보 김수녕 박항서 이봉주 故최동원

□ 최종후보자 명단(성명 순)

사진	최종후보자	주요업적 및 훈포장
	<b>김수녕</b> 양궁선수 (만 51세)	<b>[주요업적]</b> • 198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개인1위, 단체1위 • 1992 제25회 바르셀로나올림픽대회 개인2위, 단체1위 <b>[훈포장]</b> • 체육훈장 청룡장 수훈 • 대한민국 체육상 • 백상체육대상
	<b>박항서</b> 축구 지도자 (만 63세)	<b>[주요업적]</b> • 2002 한일월드컵 4강(국가대표팀 수석코치) • 2002 부산아시안게임 3위(국가대표팀 감독) •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2017~현재) <b>[훈포장]</b> • 대한민국 체육훈장 맹호장 수훈 • 베트남 2급 노동 훈장, 우호 훈장 수훈
	<b>이봉주</b> 육상선수 (만 51세)	<b>[주요업적]</b> • 1996 아틀란타올림픽 마라톤 은메달 • 1998 방콕 아시안게임 마라톤 금메달 <b>[훈포장]</b> • 2009 체육훈장 청룡장 수훈
	<b>故 최동원</b> 야구선수 (향년 53세)	<b>[주요업적]</b> • 1980 도쿄 세계야구선수권대회 준우승 • 1982 서울 세계야구선수권대회 우승 <b>[훈포장]</b> • 1981 캐나다 대륙간컵대회 최우수선수 • 1984 KBO MVP, 탈삼진 1위, 다승 1위, 골든글러브 투수상

2022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최종 후보는 김수녕(양궁), 박항서(축구), 이봉주(육상), 고(故) 최동원(야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한체육회는 이들 4명을 올해 스포츠 영웅 최종 후보자로 확정하고 19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최종 후보자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체육회는 이달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홈페이지에서 국민 지지도 조사를 벌여 최종 심의를 거친 뒤 다음달 말께 스포츠 영웅 입회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역대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한 '신궁' 김수녕(51)과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민간 외교 사절로 주가를 높인 박항서(63) 감독은 2년 연속 스포츠 영웅 최종 후보에 올랐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52)와 '무쇠팔'로 아마추어와 프로야구 초창기를 빛내다 53세의 젊은 나이에 2011년 영면한 최동원이 후보로 새로 가세했다.

체육회는 스포츠를 통해 선수와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되고 국민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준 선수 또는 스포츠 공헌자(지도자·행정가·언론인 등)를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 선정, 체육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왔다.

역대 선정된 스포츠 영웅은 ▲ 2011년 故 손기정(육상), 故 김성집(역도) ▲ 2013년 故 서윤복(육상) ▲ 2014년 故 민관식(스포츠행정), 장창선(레슬링) ▲ 2015년 양정모(레슬링), 박신자(농구), 故 김운용(스포츠행정) ▲ 2016년 김연아(피겨스케이팅) ▲ 2017년 차범근(축구) ▲ 2018년 故 김일(프로레슬링), 김진호(양궁) ▲ 2019년 엄홍길(산악) ▲ 2020년 故 조오련(수영) ▲ 2021년 故 김홍빈(산악)이다.

# 주간 스포츠 소식

문체부, '스포츠진흥계획' 위해 현장 의견 또 듣는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916000095>

우리 시대가 원하는 이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헐크의 일기]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159839?ref=naver>

스러져버린 꿈...KBO 드래프트서 트라이아웃 출신 '지명 0'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5141000007?input=1195m>

“재 때려” 경기 중 한인 女선수 폭행 지시한 엄마, 처벌받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2413>

신경호 교육감, 테니스 꿈나무 이서아 학생 전폭 지원

<http://www.kwnews.co.kr/page/view/2022091815114193359>

KUSF, 2022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소양교육 개최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33892>

"공정과 존중"...KADA·스포츠윤리센터 업무협약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4156700007?input=1195m>

스포츠윤리센터, 장애체육인 실태조사 실시

<http://www.ikbc.co.kr/article/view/kbc202209130022>

"일시적인 결과보다 선수의 성장에 초점 맞춰야" U20 국가대표 배출한 여의도고 황득하 감독의 지도철학

<http://osen.mt.co.kr/article/G1111941798>

# 체육시민연대

##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